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1 성경통독:** 신약성경 1독을 위한 성경통독이 있습니다. 일시: 2.14(화) -16(목) 오전 9시 40분 - 오후 2시 40분

장소: Chapel Room 회비: 30불(점심값). 신청: 경덕현 집사 (성인 교육부)모임

- 2 모임: 건축 위원 및 안수집사, 장로 모임이 계수실에서 있습니다.
- 3 예배: 이번 주부터 공동체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이기에 열심을 냅시다.
- 4 요람: 요람이 지난주에 발간되었습니다. 받지 못한 성도들은 지참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5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6 감사: 바누아투 학생을 위한 후원자 신청에 넘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7월례회: 다음 주부터 월례회 일정에 맞추어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우소식

1 등록: 고석승, 김은희 66c Greenlane East Remuera 520-4980 베트남 2남, 2여 선교회김종원, 김영경 7 Dryden Ave Papatoetoe279-7100 캄보디아 4남, 3여 선교회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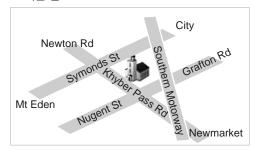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밀알장애우 봉사

오시는 길 📰





나무, 나무들 - 이경자 권사

대부분의 주민들이 출근하고 난 조용한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열고 보니 어떤 젊은이가 "흰 차가 당신의 차냐?" 물으며 차를 좀 딴 곳으로 옮겨달라 청한다. 주렁주렁 공구를 매단 허리띠를 두른 모양새가 나무정리를 하러 온 줄 금새 알게 했다. 얼마 전 타운하우스 매니저가 나무정리를 할 거란 얘기를 해서 알고 있던 터이기도 하고…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아 아예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장을 보러 나갔다. 굳이 빨리 돌아가 봐야 시끄럽기나 할 것 같아 잘 가지 못하고 궁금해하던 코너도 모처럼 여유 있게 기웃거려 보고 푸성귀와 과일도 찬찬히 보며 골랐다. 이쯤이면 다 끝났겠지, 시간 가늠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잘못 찾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지나가는 차 소리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뻥 뚫린 하늘이 파랗게 질려 보였다. 마당을 큰 트럭이 그들먹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 뒤엔 암팡지게 생긴 나무 분쇄기가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입을 꼭 다물고 모든 일은 이미 저질러져 있었다. 집채만 한 큰 나무가 종적도 없이 사라져 보이지 않고 점심시간인 듯한 사람은 트럭 운전대에 다리를 꼬아 걸친 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사라진 나무의 뿌리까지 잘라내느라 허리께까지 땅밑으로 가려있고, 그 옆으로는 삽질로 떠올리는 흙과 나무뿌리로 봉분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가슴속으로 바람이 솨아 지나가면서 울컥 눈물이 솟아올랐다. 지붕으로 뻗은 가지만을 전지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트럭 옆에서 눈물을 찍어내고 있는 키 작은 동양 할머니가 기이해 보였는지 삽질하던 이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본 후 하던 일을 계속하고 빵 먹던 젊은이가 놀란 듯 후닥닥 뛰어 내려와 열심히 뭐라 지껄이긴 하는데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뻐금대기만 하지 말소리는 하나도 내 귀에 닿지 않았다. 십 년 세월을 같이 했던 나무인데… 얼마 전 타운하우스 운영회에서 몇 번이나 올린 안건이 어렵게 통과된 후 낡은 물받이와 홈통을 교체해주고 간 얼마후였다. 여러 동이 모여 타운을 이루고 살지만 유독 우리 동의 물받이와 홈통이 삭았는데, 그 이유가 옆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들이 지붕 위로 떨어져 쌓여 막히고 또 썩기 때문이라는 얘길 들었다. 그래도 그렇지 다른 데 보니 전선이 지나가는 자리만 나무를 니은자로 도려내기도 했던데…하긴 그 젊은이들이 무슨 (안에서 계속됩니다) 잘못이라.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뿌인데…

당한 명한 보기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84:10-11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3장	다함께
*	성시교독	17. 시편 29편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91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7:17-33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	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약속을 따라 난 사람	이태한목사
	찬송	545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목사 찬양 / 심창진목사 기도 / 박형길청년 성경봉독 / 눅8:35-39 설교 / 변화의 시작/ /심창진목사 찬송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김봉희집사 성경봉독 / 삿7:1-14 설교 /전쟁과 믿음/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302장 주기도 / 다함께

⊙ 2월 교회역자

교사교육:

2월 4일 (토)

성경통독:

2월 14일 (화)

- 2월 16일 (목)

사순절 1:

2월 26일 (주일)

⊙ 2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이광희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 장태옥/원미경

○ 기도는서

다음 주일 1부: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2부: 장연식 집사

이번 주 수요기도: 김봉희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최재영 집사

2월 26일 1부: 고성일 집사

2월 26일 2부: 워미경 집사

2월 22일 수요기도: 김석묵 집사

2월 22일 애차기도: 최광암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 1. 방사선 치료 중인 기섭이에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몸속의 장기들이 항암치료로 약해지지 않도록,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질병과 싸우는 기섭이와 가족들이 되도록
- 2. 공동체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믿음이 더 성숙하는 각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넘치도록 공동체장들에게 구성원을 품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 3. 직업과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자리가 생겨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주의 성전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 여건이 좋아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형통 토록
- 4. 성전 건물 구입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삶의 전 영역에 주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앞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나무는 큰길과 나란히 인도 옆으로 처져 있는 타운 담장 안에 있던 큰 나무 세 그루 중하나였다. 잎이 늘 기름을 바른 듯 반짝이고 두 아름도 훨씬 넘는 둥치에 굵은 몇 가지는 처억하지 팔꿈치를 방바닥에 세우듯 한번 땅에 멈췄다 다시 하늘로 향하고 그 나무 아래엔 커다란 바위 하나와 작은 바위가 그늘 밑에 품어 안기듯 자리하고 있었는데, 큰 바위에 기대서면 하늘이 가려지고 나뭇잎들은 늘 소슬한 바람을 넉넉히 품고 있었고 그 바람이 솨아하고 바닷소리를 낼 때면 그리운 곳을 찾듯 주위를 둘러보게 하곤 했었다. 반쯤 덮여있는 윗집 발코니는 시골 원두막을 생각하게도 했었고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로는 나무 밑을 적시지 못할 정도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배곯은 아이의 갈비뼈처럼 나무 발코니는 초라하게 노출되고 운치 있던 바위들은 거대한 쇠똥구리가 굴리다 팽개쳐 버린 그것처럼 칙칙하고 흔한 화산석으로 햇볕에 달구어져 있었다. 또, 그 뒷쪽에 있는 더 큰 플라타너스엔 흰 페인트로 엑스(X)자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 그 나무는 내년에 자를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그 내년이 왔다. 언제 자르겠다는 확실한 언질도 없이 나무는 흰색 페인트의 X자를 가슴에 안은 채 해를 넘기고 성글어진 햇볕 속에 지나가는 잔바람에도 물색없이 흔들리고 있다. 나무에게도 저주를 하던지 듣기 싫은 소릴 하면 말라 죽는다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말이 정말인가 싶을 만큼 나무는 몰골이 더욱더 어수선하다. 원래 플라타너스는 한여름이 지나면 다 그렇지 않았나 하면서도 지붕 위로 뻗은 많은 가지들을 그냥 두기엔 피해가 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한다. 두껍고 질긴, 마치 가죽같은 잎사귀는 잘 썩지도 않고 나무가 저리 크니나뭇잎은 또 얼마나 많이 떨어져 쌓였겠나?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삶의 한계가 있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X 자 앞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빠르고 늦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솎아질 날이 있기 마련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료들은 큰 나무처럼 푸근한 그늘로 이민생활의 힘듦을 서로 다독이고 나 스스로는 행여 세월로 굳어진 고집과 완악함으로 성도 간의 소통을 막는 일은 없는지 뒤돌아 보게 하는 하루였다. 하얀 X자 앞에서…

